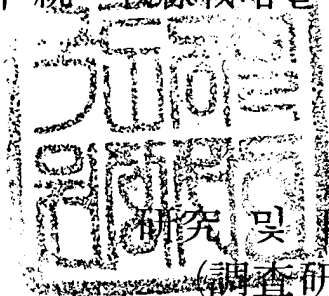


- I. 이 冊子는 國土統一院의 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研究 報告書임.
-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 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中共의 對臺灣 統一政策展開의 對內外的 背景에 關한 研究

(中共의 統一戰線戰略을 中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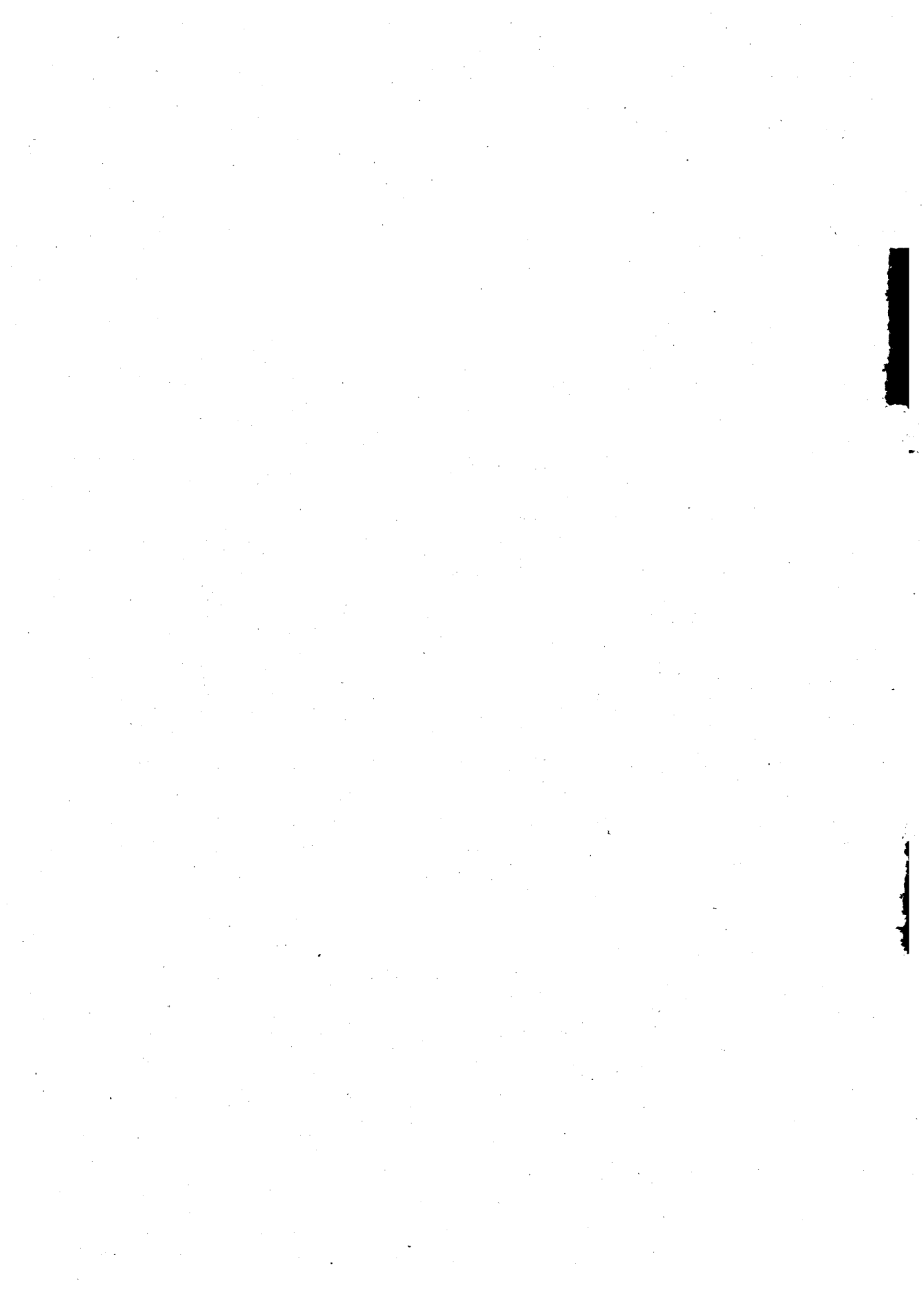
研究 및 刊行責任：洪 良浩
(調查研究室 行政事務官)

460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1. 序 論	3
2. 中共의 統一戰線戰略의 本質	4
3. 第 1, 2 次 國共合作의 對內外的 背景	9
가. 第 1 次 國共合作 (1923 ~ 27) 의 對內外的 背景	9
나. 第 2 次 國共合作 (1937 ~ 46) 의 對內外的 背景	14
4. 最近 中共의 對臺灣 統一政策 (第 3 次 國共合作) 의 對內外的 背景	18
가. 第 3 次 國共合作의 內容	19
나. 第 3 次 國共合作의 對內外的 背景	25
5. 中共과 北韓의 統一戰略 比較	29
6. 結 論	39



1. 序 論

中國 共產黨이 2次에 걸친 國共合作을 통하여 黨勢力을 擴張하는 한편, 마르크스-레닌主義에 立脚한 中國大陸의 共產化를 企圖하다가 마침내 共產暴力革命이 成功하여 國民黨政府가 臺灣으로 逐出되고 1947年 中國大陸에 毛澤東이 領導하는 中華人民共和國이 樹立되었다는 事實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中共은 政府樹立以後 지금까지 國家의 諸般政策中 統一政策을 最優先에 두고 있으며, 統一을 達成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努力을 傾注해 오고 있다.

그런데 最近에 들어와 中共은 毛澤東時代부터 一貫해 온 ‘臺灣解放’이라는 戰略을 ‘中國統一’, ‘臺灣의 祖國復歸’라는 戰略으로 轉換하면서 臺灣에 대한 平和統一攻勢를 強化하고 있다. 即中共은 ‘武力’에 의한 臺灣問題의 解決이라는 從來의 方式이 困難하게 되자 ‘平和的 解決’을 主要政策으로 採擇, ‘祖國統一’을 위한 平和攻勢를 積極적으로 展開하고 있다.

이러한 中共의 對臺灣 統一政策의 變化는 對內外的인 여러 要因에서 일어난 것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中國共產黨의 基本戰略인 統一戰線戰略의 脈絡에서 그 理由를 說明할 수 있다.

따라서 本 研究은 共產黨의 統一戰線戰略의 歷史的 展開의 觀點에서 最近 中共의 平和統一政策을 照明해 보기 위하여 第1次 國共合作으로부터 最近에 이르기까지 中共이 展開해 온 對臺灣 統一政

策의 對內外的 背景을 糾明해 보고 그들의 統一戰線戰略의 性格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서 中共의 統一戰線戰略에 의한 國共合作의 戰術을 北韓의 平和統一戰略과 比較 考察하여 우리의 對北統一政策 創出에 參考하고자 한다.

2. 中共의 統一戰線戰略의 本質

中共의 對臺灣 統一政策은 그들의 統一戰線戰略에 立脚한 것이므로 우선 毛澤東思想에 基礎한 統一戰線戰略의 本質을 理解하는 것이 重要하다.

統一戰線이라는 用語는 1921年과 1922年에 각각 開催되었던 第3次 및 第4次 코민테른(Comintern)大會에서부터 쓰여지기 始作했다.

當時 이 戰略은 유럽 특히 獨逸革命의 失敗로, 武裝暴動戰術 대신에 大衆 支持의 獲得을 통해 共產黨의 劣勢를 補完하며 敵의 勢力을 弱화시키기 위하여 레닌의 支配下에 있던 코민테른에서 採擇된 革命退潮期의 戰術이다.

第3次大會에서 “統一戰線 테에제”를, 第4次大會에서는 “戰術에 관한 테에제”를 각각 採擇한 이래 가장 典型的인 國際共產主義運動의 戰術로 利用되어 왔다.

코민테른 第3次大會에서는 社會民主黨과의 共同戰線의 結成을 決議하였다. 그리고 第4次大會에서는 처음에는 社會民主黨의 여러 指導者와 行動統一을 期하는 “위로부터의 統一戰線”에 重點을 두었으나 이에 失敗하자 勞動大衆을 對象으로 하는 “아래로부터의 統一戰線” 戰術로 轉換하였다.

이것은 레닌이 코민테른을 통하여 政治工作上 만든 中國共產黨에서도 例外일 수는 없었다. 2次에 걸친 國共合作이 바로 統一戰線의 구체적인 表現이었다. 이렇듯 統一戰線戰略은 劣勢한 共產黨이 자기들의 窮極적인 目標을 隱蔽하고 時期와 環境에 맞는 融通性과 適應性있는 綱領을 내세워 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諸政派와, 심지어는 政敵과도 一時的인 聯合戰線을 形成한 후 多數의 힘을 빌어 共同의 目標을 達成하고 나면 內部로부터 서서히 浸蝕하여 分裂을 助長하고 하나씩 하나씩 각개 擊破해 버림으로써 勝利의 結果를 獲得하려는 一種의 計略이라고 말할 수 있다.

中國共產黨에 있어서 統一戰線戰略은 毛澤東思想의 틀위에 基礎하여 展開되었으므로 毛澤東思想에 立脚하여 그 本質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1) 大衆路線

毛澤東思想의 基本的인 特徵의 하나는 大衆路線에 있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中心路線을 毛澤東은 中國이 後進農業國이었으므로 壓倒的 多數인 農民中心의 大衆路線으로 變形시켰다.

共産黨이 國民黨에 비하여 軍事的으로 劣勢하였으므로 그것을 政治的으로 挽回하기 위하여 大衆의 支持와 統一戰線의 展開를 強調하였다. 이 大衆路線이 軍事的으로는 게릴라路線을 바탕으로 하는 人民戰爭論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는 게릴라部隊와 大衆의 關係를 「물과 고기」의 關係에 比喻하여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게릴라部隊는 大衆의 支持없이 살 수 없다고 強調했다. 그래서 그는 農村에서 農民中心의 統一戰線을 形成하여 都市에 있는 有産者階級(國民黨)을 包圍, 陷落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그의 소위 農村에 의한 都市包圍戰略이다. 그리고 이러한 農民中心의 大衆路線의 政府形態에서는 聯合政府論, 그리고 權力構造面에서는 聯合獨裁論으로 表現되었다.

(2) 過渡期的인 階級聯合

毛澤東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바탕위에서 矛盾의 辨證法的 統一法則을 統一戰線戰略에 適用시켜 矛盾된 階級과의 聯合戰略으로 使用하였다.

中國社會의 特徵을 勞動者, 農民, 兵士와 軍閥, 官僚, 地主, 資本家 사이의 對立으로 보고 敵對勢力에 대한 友好勢力의 同盟을 強調하여 階級聯合의 戰略을 採擇하였다. 階級の 聯合에 의한 統一戰線이 政府形態에 있어 聯合政府論으로 나타나고, 權力構造에 있어서는 民族資本家, 小市民, 勞動者, 農民의 聯合에 의한 聯合獨裁論으로 表現되었다.

共産黨獨裁에 이르는 過渡期에 있어서는 階級の 分離보다는 階級の 聯合에 의해 힘의 劣勢를 補完코자 하였다.

(3) 持久的인 階級鬭爭

統一戰線戰略은 階級聯合의 性格을 띠고 있지만 同時에 階級鬭爭의 性格도 가지고 있다. 毛澤東은 社會主義 社會속에서 아직도 階級이 存在하고 있음을 強調하면서 階級間的 矛盾과 階級鬭爭은 共產主義가 完全히 實現될 때만이 終熄된다고 했으며 또한 階級間에 聯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階級鬭爭을 拋棄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矛盾·對立이 解消되어 統一되면 새로운 社會로 發展하지만, 이것은 一時的인 狀態에 不過하며 따라서 새로운 矛盾·對立이 發生하여 鬭爭케 된다고 하여 對立鬭爭의 恒久性을 強調했다.

階級鬭爭은 統一戰線 外的인 帝國主義·封建主義 및 官僚資本主義와 의 鬭爭과 統一戰線內的인 無産階級과 資産階級の 矛盾에 따른 鬭爭으로 分類하였다.

(4) 3 段階 게릴라戰術

毛澤東의 게릴라戰術은 1927 ~ 1935 年에 이르는 9 年間 “井崗山鬭爭” 과 다섯차례의 “反掃共戰鬭”, 그리고 “長征” 을 통하여 實戰經驗에서 얻은 弱者의 戰法으로서 그는 軍事戰에서만 게릴라戰術을 利用한 것이 아니고 政治戰이나 心理戰, 平和協商에서까지 活用하였다.

退却戰術은 劣勢한 自身이 優勢한 敵에 對抗할 때 自身을 擁護하기 위한 手段으로써 敵의 追擊을 中止·防禦하면서 自體整備와 武力의 強化로 蘇生發展할 수 있는 力量을 強化하는 것이다.

이 時期에 展開한 戰術의 代表的인 것은 自體의 孤立을 막을 수 있도록 外廓團體등 各種 傀儡機構를 活用하여 反孤立主義戰術을 展開하여 國民輿論과 外勢의 支持를 獲得하려는 것으로써 그 實例는 第1, 2次 國共合作時 蘇聯, 코민테른(Comintern)의 合作操縱, 抗日救國會등의 外廓團體를 利用한 事實이다.

防禦戰術은 政治的 防禦手段이며 戰略적으로는 防禦이지만 戰術적으로는 攻擊을 위한 反擊과 進擊의 防禦로써, 이 時期에는 平和協商을 利用하여 本格的으로 敵陣을 攪亂하며 後方基地를 擴大하는등 抗日戰爭 그리고 1940~1944年 사이에 展開된 第1~3次 國共協商을 들 수 있다.

攻擊戰術은 政治的 積極攻勢를 통해 外勢를 擴大包攝하여 中立化를 促進시키는데 注力하고 退却·防禦의 戰術로 自體力量을 充分히 養成하고 敵地後方に 根據地를 擴充하여 敵·我的 優劣에 變化가 일어나게 한다.

이때부터 攻擊과 協商의 二重戰術을 使用하여 敵을 孤立시키고 孤立된 敵에 대해 最後의 大攻勢로·타도하기 위한 武裝暴動을 表面的으로 合理化시켜 外勢와 國民의 支持를 얻어 그들의 主張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서는 1944~1946年 사이에 展開한 第4~7次 國共協商과 重慶會談을 들 수 있다.

(5) 合作戰術

聯合, 合作, 聯立 등의 提案은 共產國家들의 統一戰略에서 가장 두드러진 特徵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聯合·合作的 意味는 西歐概念의 Federation이나 Confederation과는 다른 Annexation의 意味에 가깝다.

왜냐하면 레닌은 하나의 民族社會에서 프롤레타리아가 支配的 地位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過渡的인 政權形態가 Federation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中共의 경우에는 中共이 確固한 프롤레타리아로서 支配的 地位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으로서 國共合作的 形式을 취할 따름인 것이다.

따라서 第1, 2次 國共合作과 終戰時의 “聯合政府”案 그리고 最近의 第3次 國共合作은 이와같은 意味에서 把握해야 하는 것이다.

3. 第1, 2次 國共合作的 對內外的 背景

第1, 2次 國共合作은 相當히 複雜한 中國의 政治環境속에서 이루어진 共產黨과 國民黨의 結合이었는데 이들 國共合作的 主要한 對內外的 背景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第1次 國共合作(1923~27)의 對內外的 背景

20世紀初 中國大陸의 一般情勢는 反植民地, 反封建狀態로서, 反帝

國主義, 反封建主義를 根幹으로 孫文이 3民主義, 5權憲法를 標榜한 辛亥革命은 當時 新思想을 接한 知識層, 一般大衆의 基盤微弱으로 袁世凱를 中心한 軍閥勢力에 蠶食되었고, 孫文이 主唱한 國民革命을 反對하는 反革命勢力과 全國에 할거한 軍閥들이 背後에서 操縱한 外勢와 結託하여 中國分轄을 試圖하는 狀態에 있었다.

이러한 中國의 一般情勢下에서 中共이 第1次 國共合作을 推進하게 된 主要한 對內外的 背景은 다음과 같다.

(1) 對外的 背景

組織基盤이나 軍事力에 있어 中國共產黨은 國民黨과는 比較가 되지 않았다. 中國共產黨은 勢力擴大를 위하여서는 時間을 버는 것이 必要하였다.

뿐만 아니라 蘇聯은 軍閥보다도 몇갑절 무서운 敵對勢力이 國民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蘇聯은 反帝國主義, 反封建主義, 反軍閥政治를 共同目標로 하여 共產黨과 國民黨을 合作시켜 統一戰線을 形成케 하였다. 더우기 레닌의 指導下에 있던 當時의 蘇聯政權은 안으로는 白系러시아人과의 內戰, 그리고 밖으로는 資本主義에 의한 “包圍” 속에서 呻吟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革命氣運의 退潮때문에 亞細亞에서 反帝·反植民의 民族主義運動에 便乘코자 하였다. 때문에 脆弱한 共產黨보다는 強力한 國民黨을 利用하기 위하여 國共合作을 指令한 것이었다.

A. 第2,4次 코민테른 (Comintern) 大會

레닌이 코민테른을 통한 工作에 의하여 中國共產黨을 創立 (1921)한 것은 中國共產黨의 獨自性を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世界革命의 道具로 利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蘇聯에는 中國의 軍閥과의 統一戰線을 主張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漸次 共產黨이나 軍閥보다는 國民黨의 利用價値를 發見하게 되었다.

1920年 7月 第2次 코민테른 (Comintern) 大會에서 레닌은 中國은 現在 外國列強의 政治·經濟的 壓力에 시달리고, 프롤레타리아 階級이 微弱하므로 프롤레타리아 革命以前에 革命過渡期로서 부르조아 民主陣營의 民族革命運動의 支持를 宣言하였다.

그리고 1922年 11月 코민테른 (Comintern) 第4次大會는 中國은 帝國主義 打倒를 위해 反帝國主義 統一戰線確立이 必要하며 中國共產黨員은 個人資格으로 國民黨에 加入하여 民族革命運動에 加擔한 勞動者, 農民을 煽動 包攝하며 中國共產黨과 부르조아階級이 聯合하여 反帝國主義鬭爭을 展開할 것을 強調하는 決議文을 採擇하였다.

그後 1923年 1月 코민테른執行委員會는 國共合作을 指令하였는바 그 主要內容은,

①國民革命의 主導勢力은 國民黨뿐이라고 國民黨의 優越性を 強調하고 ②中國의 現實은 孤立된 勞動運動勢力이 微弱하여 當面課題로서 帝國主義와 軍閥을 反對하는 民族運動을 強調하고 ③中共黨은 統一戰線 안에서 共產黨의 獨自性を 維持하며 ④國民黨에 加擔하여 勞動者를 包攝하여야 한다는 등 7個項에 걸친 것이었다.

(2) 對內的 背景

A. 新文化運動과 5.4 運動

反帝·反封建을 標榜한 新文化運動은 蘇聯의 10月革命과 파리강화조약의 直接的인 影響으로 愛國運動, 新文化運動, 北洋軍閥反對, 不平等條約 廢棄運動을 根幹으로 한 5.4 運動으로 發展하여, 初期엔 北京大學生을 中心한 學生運動에서 一般大衆運動으로 發展하여 大衆의 民衆大會, 示威, 商人, 鐵道勞動者의 罷業등으로 번져 全國的 運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政治的 雰圍氣에 대한 國民感情을 中國共產黨이 쉽사리 利用하게 되었다.

B. 國民黨政府의 紀綱解弛

1917年 廣東政府는 革命基盤의 整備擴張의 一環으로 護法運動을 展開하여 實質的으로 分裂된 中國統一을 企圖하였으나 1921年 陳炯明과 많은 軍幹部들의 背反으로 挫折되었다.

陳炯明一派의 反亂에 이어 繼續的으로 일어난 命令不服從으로 國民黨政府의 組織과 紀綱이 解弛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孫文隸下部隊는 革命精神이 透徹하지 못하고, 목적의 利害關係에 左右되고, 軍隊의 公共財産 占據등으로 國民黨政府自體의 財政狀態가 惡化되었다.

따라서 孫文은 黨을 補強하고 國內統一을 하기 위해서는 外部의 援助가 切實히 必要하였다.

C. 孫文의 國內 統一意志

國民黨政府의 孫文은 國民革命運動에 대한 海外支持를 獲得할 目的으로 外國의 精神的 支援, 物質的 援助를 要請했으나 相對

國들로부터 冷待와 敵對를 당하게 되었지만, 유독 蘇聯만의 親善의 인 態度는 孫文으로 하여금 聯蘇容共政策을 취하게 하였다. 따라서 孫文은 당시 날로 增加하는 親蘇勢力과 이로 인해 自然發生的으로 流行하고 있는 社會主義思想에 魅力을 가진 知識層과 共產主義者들을 包攝하여 大衆의 支持와 蘇聯의 援助를 얻어 反帝·反封建의 國民革命運動을 促進하며 軍閥을 打倒하여 自主的이고 民族的인 國內統一을 實現코자 하였다.

이상의 對內外的 背景아래 創黨以後 勢力基盤이 脆弱했던 中國共產黨은 表面的으로 反軍閥統一戰線의 國共合作을 통해 獨自的 政黨으로서 基盤을 確保하기 위해서 孫文의 國民黨을 支持하게 되었다.

즉, 中國共產黨은 그 獨立性を 維持하면서도 個人資格으로 國民黨에 入黨하여 國民黨의 軍閥打倒 및 國內統一의 合作 眞意와는 달리 表面合作, 內面發展이라는 目標下에 國民黨의 左派와 結託하여 國民黨의 黨權을 掌握하여 政治運動, 勞動運動 그리고 農民運動을 支配하게 되었다.

그 結果 國民黨이 共產黨의 指導下에 있던 勞動運動과 反帝運動 그리고 그 組織을 利用하려던 初期의 目的은 霧散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27年 四省暴動이 共產黨의 主導下에 일어남에 따라 第1次 國共合作은 決裂되고 毛澤東이 殘黨을 끌고 井崗山으로 逃走하게 되어 廣西소비에트時代가 始作되었는데 이에 國民黨軍의 討伐作戰이 展開되어 毛澤東은 1934年에 延安을 向하여 소위 「逃走의 大長征」에 오르게 되었다.

나. 第2次 國共合作(1937~46)의 對內外的 背景

中國共產黨의 目標은 反帝·反植民鬭爭에 의한 “民族解放”革命과 反封建鬭爭에 의한 社會主義革命이라는 2段階革命을 遂行하는데 있었다.

이 2個의 革命을 勢力基盤이 脆弱한 共產黨이 單獨으로 遂行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였다. 따라서 共產黨은 國民黨과의 統一戰線에 의하여 反帝·反植民의 民族解放을 먼저 遂行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나 1次 國共合作 決裂과 蔣介石의 집요한 掃共作戰과 長征에 지쳐 소생이 不可能하게 된 中國共產黨으로서는 一次的으로 生存의 維持가 급선무였다. 그런데 때마침 日本의 滿洲侵略과 이에 따르는 中日戰爭의 勃發은 中國共產黨으로 하여금 民族解放을 名分으로 하여 第2次 國共合作을 提議할 수 있는 好機를 捕捉하게 되었다.

(1) 對外的 背景

A. 滿洲事變과 日本侵略

1927年 日本은 東邦會議를 開催하여 여덟가지의 對中政策綱領을 決定하여 戰鬪적이고 노골적인 侵略性을 보인 對中國政策을 推進하던중 1931年 7月 18日 南滿鐵道暴破事件을 구실로 滿洲全域에서 일체히 軍事行動을 開始하여 短期間內에 滿洲全域을 日本軍手下에 들게 하였다.

그리하여 1932年 3月 1日 滿洲國을 建立하였다.

이에 격분한 蔣介石은 問題解決을 國際聯盟에 呼訴하였으나 무위였고 日本은 侵略의 範圍를 계속 擴大하였다. 그 結果 1937年 7月 北京 郊外에 있는 蘆溝橋事件때문에 本格的인 擴戰으로 變하여 以後 8年間に 걸친 中日戰爭이 始作되었다. 그 結果 國共間에는 抗日統一戰線의 形成이 必要하게 되었다. 그러나 第1次 合作에서 속은 國民黨은 共產黨의 合作呼訴를 무시하였으나 後述하는 바와 같이 西安事件으로 第2次 合作이 不可避하게 되었다.

B. 第7次 코민테른(Comintern)大會

日本 軍國主義와 獨逸 나찌즘의 威脅을 느낀 蘇聯은 自國의 安全을 위하여 1935年 7月 第7次 코민테른(Comintern)大會를 開催하고 各國 共產黨에게 反파쇼 統一戰線의 形成을 決議하였는데 이때 “中國에서는 日本帝國主義와 그의 追從者들에 對抗하기 위한 全國民的인 武裝民族解放革命鬪爭이 展開되어야 하며, 中國소비에트는 中國의 解放鬪爭에 있어 全中國 國民을 統一하는 中心的 役割을 해야 한다”고 하고 또한 “中國共產黨은 民族解放鬪爭戰線을 擴大하여야 하며 全民族의 힘을 民族解放鬪爭에 끌어 들이기 위해 努力해야 한다”고 決議하여 指令하였다.

(2) 對內的 背景

A. 國民黨政府의 對日穩健政策

第1次 國共合作에 속은 蔣介石은 日本에 相當한 양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統一을 위하여 掃共戰을 斷行했다. 그 結果 蔣

介石은 日本의 滿洲植民地化를 위한 武力侵攻에 대하여 시종 無抵抗主義를 主張하고 問題의 解決을 國際聯盟에 依存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對日穩健政策의 目的은

① 共產黨 掃蕩戰에 全力을 投入하려는 것이며

② 英·美兩國과 日本과의 關係에서 나타나는 帝國主義的 矛盾에 의하여 英·美國이 日本의 侵略政策에 壓力을 가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과 더불어 타협이 成立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편 國民黨政府는 1933年 5月 31日 日本과 塘沽協定을 締結하여 對日平和交涉을 推進하였으며, 日本의 武力行爲가 滿洲地域에서 限定되기를 期待하였다.

B. 中國人의 抗日運動

滿洲事變이 勃發하였을 때 國民黨政府의 對日無抵抗主義는 中國人의 不滿을 招來, 여러가지의 自發的인 抵抗運動을 展開케 하였다. 滿洲事變後 中國 共產黨은 “抗日宣言”을 發表하고 “大衆을 組織化하여 日本帝國主義에 抵抗케 할 것”이란 運動을 全國적으로 展開하였다.

1935年 12月 北京을 위시한 主要都市에서는 學生, 文化人, 言論系의 大規模 抗日騷擾가 일어났으며, 上海와 靑島에서는 反日勞動罷業이 展開되어 國共間의 內戰中止를 要求하는 民衆의 呼訴가 더욱 비등하게 되었다.

이러한 民衆의 抗日精神을 利用하여 共產黨은 國民黨을 抗日戰爭에 몰아넣어 위기를 挽回하고 勢力을 부식코자 하였다. 그래서 共

産黨은 코민테른 第7次大會의 決議에 따라 1935年 8月 1日 소위 “抗日救國宣言”(8.1宣言)을 하고 1936年 8月에는 國民黨에서 한을 보내어 抗日統一戰線의 形成을 꾀하면서 大衆宣傳工作을 展開하였다.

C. 西安事件(1936. 12. 12)

日本侵略의 擴大로 抗日輿論이 高潮되었으나 本格的인 抗日鬭爭의 展開는 國民黨政府의 必然的인 崩壞를 超來할 것을 두려워하여 國民黨은 한때 掃共作戰에 대한 열의가 弱化되어 있었다. 이때부터 督戰次 西安에 간 蔣介石을 共產黨討伐司令官 張學良과 楊虎成이 共產黨에 買收되어 蔣介石을 감금하고(1936年 12月 12日) “內戰中止 一致抗日” 등 8個條項을 提示하여 蔣介石에게 이를 受諾할 것을 強要했다. 그리고 동 14日에는 軍事委員會의 組織이 張學良에 의해 宣布되고 “聯合抗日救國軍”이 編成되었다. 이리하여 蔣介石은 張學良의 要求條件을 原則적으로 承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第2次 國共合作을 위한 妥協이 이루어졌다.

그러던중 1937年에 日本軍이 蘆溝橋를 攻擊하여 中日戰爭이 勃發함으로써 第2次 國共合作이 이루어졌다.

이상의 對內外的 背景아래 1次 國共合作 決裂後 支離滅裂하게 된 中國共產黨은 表面的으로 一致抗日, 內面的으로는 共產黨 蘇生, 發展을 꾀하고자 抗日民族統一戰線을 宣言하여 國民의 支持를 얻고 그 壓力을 利用하여 蔣介石의 第6次 掃共作戰을 막았다.

中國共產黨은 知識人을 吸收, 民衆을 包攝하여 國民黨을 孤立, 攪亂

시키고 毛澤東의 指示에 따라 “抗日 10%, 對應 20%, 擴大 70%”의 戰略으로 抗日國共合作을 利用하여 自體發展 음모를 遂行하고 正規戰은 國民政府軍, 遊擊戰은 中共軍이 擔當하자는 戰爭分業을 提議함으로써 抗日戰爭은 주로 國民軍이 擔當하고 共產軍은 後方에서 大衆을 組織化하여 日本과 長期戰에서 滿身瘡痍가 된 國民黨政府를 打倒하고자 하였다.

結局 國民黨은 莫強한 軍事力과 組織力을 가지고 마지막 國內統一의 意志를 實現코자 하였으나, 共產黨의 抗日民族統一戰線戰略에 휘말려, 급기야 1949年 共產黨에 의하여 本土에서 逐出되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4. 最近 中共의 對臺灣 統一政策(第3次 國共合作)의 對內外的 背景

中國共產黨은 1949年 國民黨政府를 臺灣으로 쫓아내고, 毛澤東이 領導하는 中華人民共和國를 樹立하였으며 그 결과 國土는 分斷되었다.

그리하여 中共政權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統一問題를 諸般政策中 最優先政策으로 採擇하고 이를 實現하기 위한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

中國共產黨은 政府樹立初期에는 武力에 의한 臺灣解放을 企圖하였었다. “銃口에서 政權이 誕生한다”는 毛澤東의 暴力革命思想에 따

라 1954 ~ 1955 年 사이, 그리고 1958 年에 中國의 海岸가까이에 있는 國民黨政府가 統治하고 있는 金門島, 馬祖島, 澎湖島 等地에 軍事的 壓力를 가하였다. 그러나, 이 試圖가 失敗하고 또 國內外狀況의 變化에 따라 “臺灣解放” 問題를 잠시 유보시키는가 하였으나, 臺灣에 대한 武力解放이 不可能하다는 것을 認識한 후로는 ‘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 라는 統一專摺機構를 통하여 平和統一 攻勢를 積極 強化하기 시작했다.

특히 1978 年 12 月 16 日 美國이 中共과 外交關係를 樹立하고 臺灣의 國民黨政府와의 外交關係斷切을 宣布하자 中共은 이를 臺灣에 대한 平和攻勢를 展開할 좋은 機會로 보고 武力에 의한 “臺灣解放” 政策을 平和적인 統一政策으로 戰術적인 變化를 가져왔다.

그 結果 1981 年 10 月 1 日 全人大常務委員長 葉劍英에 의하여 平和統一 9 個方案, 即 第 3 次 國共合作을 提議하기에 이르렀다.

가. 第 3 次 國共合作의 內容

中共의 平和統一政策은 1979 年 1 月の 臺灣同胞에게 고하는 글(告臺灣同胞書), 1981 年 5 月の 祖國統一 6 個原則 및 1981 年 10 月の 中國平和統一 9 個方案 등 일련의 平和統一 提議에 의해 잘 밝혀지고 있다.

(1) 臺灣同胞에게 고하는 글(告臺灣同胞書)

이는 1979 年 1 月 1 日 第 5 次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이름으로 發表된 것으로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統一의 實現을 위해 臺灣의 現狀과 臺灣 各界人士의 意見을 尊重하고, 合理的인 政策을 採擇, 臺灣人民에게 損失이 超來되지 않게 함.

②臺灣人民과 臺灣當局이 “民族利益”을 重視하여 統一課業에 貢獻할 것을 바랍.

③金門砲擊을 中斷함.

④通信, 通航, 兩方面의 直接接觸과 相互交換, 親知訪問, 旅行觀光, 學術, 文化, 體育交流를 提議함.

(2) 祖國統一 6個原則

이는 1981年 5月 15日 鄧小平이 日本 國策研究所 代表에게 밝힌 것으로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臺灣의 現政權 認定

②臺灣人의 現生活水準 維持 保障

③臺灣에 대한 外國投資 保障

④臺灣의 軍事力 維持 保障

⑤臺灣地方政府의 人事決定權 認定

⑥臺灣의 對外關係 維持 保障

(3) 中國平和統一 9個方案

이는 1981年 10月 1日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長 葉劍英이 鄧小平의 主張을 具體化한 9個項의 “國共對等談判”이라는 이

른바 第3次 國共合作案으로서 지난 數年間 中共이 提議한 모든 統一方案을 綜合補完한 것이며 中共의 平和統一政策의 基調를 이루는 것이다.

그 內容을 보면

①中國民族이 直面한 分裂의 不幸한 局面을 早速히 종결짓기 위해 우리들은 共產黨과 國民黨의 兩黨이 대등히 담판하여 第3次合作을 實現시켜 祖國統一의 大業을 함께 完成하기를 건의한다. 雙方은 먼저 代表를 派遣해서 接觸하고 充分히 意見을 交換한다.

②臺灣海岸 양쪽의 各 民族들은 서로 소식을 전하고 친척들을 만나며, 通商을 發展시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리들은 雙方이 共同으로 郵便交流를 하며 通商, 往來, 親戚을 訪問하고 旅行을 하며 學術文化를 發展시키고 體育交流를 圓滑히 하기 위해 이를 協議한다.

③나라의 統一을 實現시킨 後 臺灣을 特別行政地區로 만들 수 있으며 高度의 自治權을 누릴 수 있고 아울러 自治軍隊도 保有할 수 있고, 中央政府는 臺灣의 地方事務에 간섭치 않는다.

④臺灣의 現行社會와 經濟制度는 不變이고 生活方式도 不變이며 外國과의 經濟文化關係도 不變이다. 私有財産과 家屋, 土地, 企業所有權의 合法的인 繼承權과 外國의 投資도 侵害받지 않는다.

⑤臺灣當局과 各界의 代表人士들은 全國的 政治機構의 指導의인 業務를 맡아 國家管理에 參與할 수 있다.

⑥臺灣의 地方財政이 困難을 받을 경우 中央政府의 參酌을 거

쳐 援助를 받을 수 있다.

⑦臺灣의 各民族과 各界人士들은 祖國大陸에 歸還해서 居住하기를 원하면 이를 周旋하며 차별대우를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往來하도록 保障한다.

⑧臺灣의 商工系人士들이 祖國大陸에 投資하고 各種 經濟事業에 參與하는 것을 歡迎하며 그 合法的 權益과 利潤을 保障한다.

⑨祖國을 統一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責任이다. 우리는 臺灣의 各民族등 各界人士 民衆團體들이 各種 經路를 통해서 各種方式의 건의를 提供하며 나라의 나아갈 바를 함께 討論하는 것을 熱烈히 歡迎한다.

우리들은 國民黨 當局이 “하나의 中國”을 堅持하고 “두개의 中國” 立場을 反對함으로써 民族의 大義를 尊重하기를 바라며 지난 날의 惡意를 씻고 함께 손잡고 共同으로 祖國統一의 大業을 完成, 中華의 榮光을 復興시키고 祖上代代로 내려온 榮光과 子孫後代의 幸福을 이룩해서 中華民族의 歷史에 새로이 빛나는 한 페이지를 記錄하자.

以上の 9個方案은 지난 數年間 中共側이 提示한 그 어떤 統一方案보다 더 具體的이며 臺灣에 대해 보다 관대한 立場을 보였다.

이러한 中共의 提議에 대한 臺灣 民間人側의 態度는, 協商反對에서부터 豫備協商 打診에 이르기까지 多樣하였으나 自由中國側의 基本立場은, 두차례에 걸친 國共合作의 쓰라린 經驗 및 西藏에 대한 中共의 強壓的 統合方式에 비추어 基本的으로 拒否的인 態度를 취

하고 있다.

自由中國側の立場은 ①中國은 하나이며 自由中國이 正統政府이며 「하나의 中國」의 代表로서 共產獨裁에 呻吟하는 本土를 救出할 使命을 지니며, ②臺灣이 三民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 中共은 共產獨裁에 立脚하고 있으므로 統一合作 提議에 앞서 共產主義를 拋棄해야 하며, ③過去 두차례에 걸친 國共合作에 의하여 國民黨政府가 背信당했기 때문에 이번 提議도 믿을 수 없는 僞裝平和攻勢라 하여 일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自由中國은 中共의 第3次 國共合作 提議를 西藏方式의 臺灣解放方式이라고 指摘하였다. 中國共產政權이 樹立될 當時 西藏은 中國本土의 一部分이었으나 거리가 멀고 변두리地域인 關係로 内地와 斷絶되어 政治制度나 經濟生活 또는 社會組織上에서 内地와 다른 體系를 獨自적으로 運營하고 있었다. 1950年 中國共產黨은 西藏 地方政府에 대해 平和적으로 西藏問題를 解決할 會談에 응할 것을 提議하고 1951年 17個條로된 西藏의 平和的 解決方法에 대한 協定을 締結하여 西藏地方政府는 表面上으로는 自治權을 行事하였으나 中央政府의 干涉과 彈壓 그리고 西藏内部에서 分裂의 음모가 심해지자 指導者들은 印度로 亡命하거나 地下化하여 反共鬭爭을 展開하였다. 이에 中共中央政府는 이를 진압한다는 名分으로 西藏地域에 軍事的 行動을 斷行, 西藏을 完全吸收하였다. 즉 中國共產黨은 西藏問題 解決에서 寬容의 條件을 提示하여 合理的인 印象을 주었으나 먼저 軍事的으로 西藏地方政府를 掌握하고 다음에 政治參與過程에서 西藏地

方 政治人士들의 內部的 分裂을 助成시킨 後 西藏을 完全 統合시켜 버렸다.

이상의 西藏解決方式으로 추측컨대 第3次 國共合作提議도 鄧小平이 이탈리아 하원의장 “닐레조티”와의 會談에서 “事態進展은 더딘 것이 自然스럽다”(人民日報 '81.10.3)라고 自身の 所信을 밝힌 것을 보면 西藏解決方式이 아닌가 하고 疑問이 간다.

또한 中國의 平和統一 9個方案의 內容을 嚴密히 分析해 보면, 中國共產政權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基礎하고 있고 특히 1982年 9月1日에 開催된 12全大會에서 黨副主席 鄧小平은 80年代의 3代 課業으로서 ①社會主義 現實化 ②反霸權主義 鬭爭 ③統一問題를 들고 있는데, 이는 冷酷한 排他性을 갖고 있으며 伸縮性和 適應性을 크게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레닌主義가 政權의 基本意識으로 作用하는 限 平和的 合作은 不可能할 것이다.

특히 9個方案中 第1項에서 共產黨과 國民黨間的 “對等談判”을 提示하고 第3項에서는 自由中國을 地方政府로 規定하였다. 이런 狀況下에서 眞正한 對等談判은 不可能할 것이며 특히 臺灣이 中共의 地方政府로 편입되는 경우 中華民國 國號, 國歌, 國旗 및 憲法의 修正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中國平和統一 9個方案 提議는 결코 國共間的 “對等談判”의 提議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4) 其 他

1980年 10月 人民政治協商會議 常務委에서 自由中國의 建國記念日인 辛亥革命 70周年 記念行事를 대대적으로 舉行키로 결정한 것을 비롯,

北京放送主催 '臺灣歌謠祭開催', 孫文의 再評價, 손문학설 및 辛亥革命에 관한 積極的인 研究, 蔣經國 및 其他 自由中國 高位層 人士들의 招請, 蔣介石에 대한 새로운 評價, 蔣介石家族 및 其他 國民政府要인들의 墓地 및 舊居補修, 各種 交流提議등 自由中國에 대한 平和統一攻勢를 積極的, 組織的으로 展開하고 있다.

나. 第3次 國共合作的 對內外的 背景

中共은 1949年 國民黨政府를 臺灣으로 逐出하기까지 武力이나 暴力을 使用하기 보다 協商戰術에서 더많은 實利를 얻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러한 過去의 經驗을 되살려 對內外的인 狀況의 變化에 適應하여 最近에 또다시 中國共產黨 特有的 統一戰線戰略을 펴기 시작했다.

(1) 對外的 背景

A. 中·蘇關係의 惡化

1956年 蘇聯共產黨 第20次 大會에서 있었던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批判으로 일기 시작한 中·蘇間 黨的 次元에서의 理念紛爭은 1960年 中共에서의 蘇聯技術者의 全面撤收, 1962年 中·印 國境紛爭에서의 蘇聯의 印度側 支持, 1969年의 中·蘇國境紛爭등을 거쳐 國家利益의 對立으로 격화되었다. 50年代의 中·蘇同盟關係는 60年代에 와서는 政治的 不和關係로 되고 또 70年代에는 軍事的 對峙關係로 惡化되었다.

이에 中共은 蘇聯을 現代修正主義者로 規定하고 反美統一戰線의 구축보다는 反蘇統一戰線形成이 必要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國內의 으로 經濟的 難題를 打開하기 위하여서는 美國을 비롯한 西歐諸國과의 經濟協力이 要請되었다. 反蘇統一戰線의 形成을 위하여서는 臺灣問題를 中心으로 한 美·中 冷戰의 緩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는 武力에 의한 臺灣併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B. 美國·中共關係 正常化

美國과 中共간의 懸案問題는 臺灣問題였다. 美·中 冷戰과 더불어 원래 國共간의 內戰問題로 出發한 臺灣問題는 美·中間의 冷戰問題로 격화되었다.

그러나 70年代에 들어와서 國際情勢의 變化와 더불어 臺灣問題에 대한 美·中間의 基本立場은 1972年 美·中 上海共同聲明으로써 밝혀졌다. 즉 臺灣이 中國의 一部라는 中共의 主張에 대하여 美國은 中共의 이러한 主張을 “認定(acknowledge)”해 준 것이다. 여기에 있어 美國이 中共의 立場을 “認定”해 주었다는 것은 美·中共同聲明을 통하여 中共이 그들의 立場을 “再確認”한 데 대하여 美國은 中共의 그러한 主張을 “受諾(accept)”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認定”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美國이 臺灣의 政治的 問題에 대하여서는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軍事的인 安全保障問題에 대해서는 손을 떼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어쨌든 이 上海共同聲明을 계기로 하여 美·中 冷戰이 外交關係

設定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中共은 臺灣問題에 대한 平和的인 接近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C. 美國 및 日本과의 關係改善

中·蘇紛爭이 시작되기 以前인 1950年까지만 해도 中共은 蘇聯一邊倒의 經濟協力에 의해 經濟建設을 推進하였다.

그러나 中共은 蘇聯과의 紛爭으로 인해 일차적으로 經濟建設에 큰 打擊을 받았다. 그후 中共은 1964年부터 소위 “自力更生”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 애로를 克服하기에 전력을 경주했다.

그러나 自力更生에 의한 施設의 現代化, 技術革新 및 資本의 조달이라는 問題를 解決하기에는 力不足이었다.

따라서 中共은 從來의 孤立主義 經濟政策에서 脫皮하여야만 했다. 그래서 中共은 가장 급선무인 “4個 現代化”라는 國民經濟建設 基本要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美國·日本과의 積極的인 經濟協力關係를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서 美國과 日本의 協力を 얻어 蘇聯의 膨脹에 對應하는 反霸權主義에 대한 共同步調를 취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中共은 1978年 8月 12日 ‘日·中共平和友好條約’과 1979年 1月 1日 ‘美·中共友好條約’의 발효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美國이나 日本은 臺灣海峽이나 기타 周邊 地域에서 어떠한 戰爭 發生도 원치않고 있다.

中共이 美國이나 日本과 紐帶關係를 維持하려면, 적어도 臺灣海峽에서 어떠한 軍事的인 冒險도 피해야만 하게 되었다.

(2) 對內的 背景

A. 4 個現代化路線과 鄧小平體制的 登場

中共은 毛澤東死後 華國鋒體制에 이어 鄧小平體制가 登場하게 되고, 毛澤東에 대한 再評價와 아울러 實用主義 路線을 採擇하였다. 鄧小平體制的 最優先課題는 4 個現代化路線의 完遂에 있다. 그러나 鄧小平體制的 確立過程에는 文化革命勢力 等 對內的 不平不滿이 깔려 있어 鄧小平의 正統性을 確立하는 過程에서 이를 外部的 要因에 의해 解消할 必要가 있었다.

鄧小平을 中心으로 하는 새로운 體制는 反對派의 肅清에 따르는 國內的 混亂의 防止를 위하여 對外的인 安全雰圍氣와 새로운 政治的 名分이 必要하였다.

이러한 點에서도 臺灣統合과 關聯하여 “偉대한 中華의 再建” 이라는 政治的 名分이 必要하게 되었다.

B. 臺灣化 政權의 登場 可能性

中共은 臺灣내에서 “臺灣獨立國 建設”이란 소리가 비등하게 되어 蔣經國再任期間內에 統一問題를 보다 本格的으로 推進할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다. 즉 蔣經國體制가 過去 大陸系 일변도적 蔣介石體制로부터 臺灣系 中心體制로의 轉換 過程에 있는 過渡的體制로 理解, 蔣經國以後의 體制는 大陸과의 異質的 傾向이 보다 濃厚한 路線을 採擇할 可能性이 크며 이에 따라 中共으로서는 國民黨政府가 臺灣系 위주의 體制로 根本的인 體制的 性格變化가 일기전에 現體制를 說得하여 統一問題의 解決을 서둘 必要性이 提高된 것이다.

C. 地理的 興件

中國大陸과 臺灣사이에는 90 해리나 되는 넓은 臺灣海峽이 가로 놓여 있고 그 사이에 있는 金門島와 馬祖島 그리고 澎湖島를 國民黨政府가 莫強한 軍事力으로 保護하고 있다.

이외에도 美 7 艦隊의 保護를 받고 있다. 따라서 中共이 保有하고 있는 海軍裝備로는 '臺灣解放'이라는 冒險的 行動을 감히 취할 수 없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對內外的 背景아래 中共은 鄧小平體制以後 第3次 國共合作을 提議하는 등 臺灣에 대한 平和統一攻勢를 積極化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平和統一攻勢도 事實은 共產黨 固有의 統一戰線戰略의 計略에 不過하다.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毛澤東思想의 原則과 現實的 條件을 勘案한 運營上의 묘를 發揮한 것에 불과하다.

요컨대 中共이 平和統一攻勢를 취하는 것은 亞細亞·太平洋地域의 團結된 反共力量을 破壞하고 臺灣과 美國을 철저히 이간시켜 美國의 臺灣接近의 害기효과를 노리며 나아가서는 臺灣政府의 軍·官·民의 士氣와 民心을 低下, 瓦解내지는 攪亂시키자는 것이다.

5. 中共과 北韓의 統一戰略 比較

中國과 韓半島의 分斷은 그 背景과 性格을 달리하고 있다. 즉 中國은 中國共產黨의 奪權過程에서 생긴 分斷인데 반해 韓半島는 外

勢에 의한 他意的, 被動的 分斷인 것이다.

때문에 中國分斷의 再結合過程은 “統一” 보다는 “解放” 혹은 “統
합” 으로 表現하는 것이 妥當하며 韓半島의 경우는 統一로 表現될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中共과 北韓은 共產主義理念에 바탕을 두
고 “革命”을 推進해 나감으로써 全領土의 範圍에서 共產主義
社會를 建設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中共과 北韓의
統一戰略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革命戰略에 그 基調를 두고 있다.
다만 戰略的 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手段과 方法에 있어서만 差異
가 있는 것이다.

中共과 北韓의 統一戰略의 共通點과 差異點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共 通 點

(1) 目 標

中共과 北韓의 統一戰略은 基本的으로 共產化統一을 追求하고
있다. 中共은 平和統一提議에서 自由中國社會制度의 不變을 前提로
提示하고 있으나 “社會主義路線” “人民民主獨裁” “黨의 領導” “마
르크스·레닌·毛澤東思想”의 4個原則이 中共의 基本律로 作用하는
한 결국 中共의 統一戰略은 中國의 共產化統一을 意味하는 것이
다. 北韓은 1980年 10月 勞動黨 6次大會에서 “高麗民主聯邦共和
國 創立方案”을 提示하였는데, 大韓民國에 대해서 反共政策의 拋棄,
容共政策 採擇, 現政權의 交替, 駐韓美軍 撤收 등의 前提條件

을 통해 事實上 大韓民國의 體制를 否定하고 있다. 이것은 大韓民國의 共產化를 위한 그들의 計略에 불과한 것이다.

(2) 革命根據地 路線

革命根據地라 함은 “革命하는 나라의 한 地域에서 勝利한 革命을 鞏固히 하며 革命的 終局的 勝利를 擔保하는 策源地”를 말한다. 革命根據地 또는 遊擊根據地라는 用語는 本來 中國共產黨의 게릴라活動過程에서 創造된 것으로서 北韓에서는 解放後 이를 “民主基地”라는 말로 대치해서 쓰여졌다.

오늘날 中共이 推進하고 있는 統一戰線은 바로 革命根據地論에 그 政治的 基調를 두고 있으며, 共產治下의 大陸本土가 革命根據地라면 臺灣은 그 根據地에 의한 “解放의 對象”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中共의 革命根據地論은 解放後 北韓에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當時 北韓共產主義者들은 38線 以北의 北韓地域이 “全朝鮮革命”의 根據地이며 南韓地域을 革命的 對象이라고 主張했다. 北韓이 60年代부터 줄곧 主張해 오고 있는 祖國統一의 “3大革命力量”(北韓의 革命力量, 南韓의 革命力量, 國際革命力量)의 蓄積에서 北韓의 革命力量의 強化가 決定的 要素로 作用한다는 것과 또한 “南朝鮮革命”을 통한 祖國統一(共產統一)도 北韓의 革命基地가 政治, 經濟, 軍事的으로 強化되었을 때만이 可能하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는 것도 바로 革命根據地論에 그 理論的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3) 統一의 推進機構

中共과 北韓은 共產主義政黨이 支配하는 唯一黨 獨裁體制이다. 그러므로 統一이라는 革命課業을 推進함에 있어서 當然히 黨과 政府가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黨과 政府보다는 各政黨, 社會團體 및 僑胞代表들로 構成되어 있는 統一戰線 機構가 앞장서서 統一問題를 推進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그들이 追求하는 統一戰略이 統一戰線이라는 戰略的 方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中共의 경우를 보면 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가 統一의 推進機構로 되어 있는데, 이는 中國共產黨을 비롯 群小政黨 및 各 社會團體와 華僑代表등 約2,000名으로 構成되어 있어 表面上 “民主的인” 外樣으로 위장하고 있다. 北韓에서 그와 같은 機構로서는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과 “祖國平和統一委員會”가 있는데 이 두 團體는 勞動黨을 包含한 政黨, 社會團體들과 各 階層 代表들로 構成되어 있다.

中共과 北韓이 어떠한 統一方案을 提議할 때에는 黨과 政府보다는 이러한 統一戰線體의 名義로 하는 것이 많았다. 이는 統一의 對象으로 되어 있는 相對方 社會가 多元的이며 多樣한 階層으로 構成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包攝하기 위해서는 特定한 黨과 政府보다는 統一戰線組織을 내세우는 것이 實效를 거둘 수 있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中共에서 海外에 있는 華僑代表를 主權機關인 全國人民代表大會 代議員으로, 그리고 北韓에서 日本에 있는 朝總聯代表 7名을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으로 選出하고 있는 것도 바로 統一을 意識한 包容策의 一環이라고 볼 수가 있다.

(4) 共產政權의 唯一 正統性

中共은 1949年 本土를 完全히 掌握하고 “中華人民共和國”을 創建한 後로 中國을 代表하는 唯一한 合法政府임을 主張하여 왔다. 最近 中共은 美·中共關係 改善以後 中共이 唯一한 合法政府임을 國際적으로도 認定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最近 平和統一 提議도 臺灣을 1個의 “省” 또는 “地方政府”로 規定, 臺灣의 本土 歸屬을 主張하고 있는데 이는 共產政權의 唯一正統性的 主張에 根據한 것이다.

北韓도 1948年 9月에 창건한 “人民共和國”이 全韓半島를 代表하는 “唯一合法政府”라고 主張하면서 大韓民國을 公式적으로 認定하지 않고 南韓을 “共和國 南半部”라고 表現하면서 大韓民國政權의 正統성을 부정하고 있다.

北韓이 유엔同時加入이나 교차승인을 “分裂主義者” “朝鮮分裂策動”이라고 非難하는 것은 역시 共產政權의 唯一正統性的 主張에 根據한 것이다.

이와 같이 中共과 北韓이 다같이 共產政權의 唯一正統성을 主張하면서 過渡的인 過程으로서의 “두 개 政府(主權)” “두 개 國家”라

는 政治的 現實을 拒否하고 있는 것은 相對方을 部分으로 보고 併
합하기 위한 것이다.

(5) 先統一·後社會主義化

最近 中共에서 發表한 統一提案에서는 臺灣의 現體제의 展
望은 물론, 앞으로 社會主義化 한다는 條項은 全然 찾아볼 수가 없
는데 이는 우선 統一해 놓고 보자는 것이지 永遠히 現在와 같은 制
度를 維持할 수 있도록 保障해 준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해서 先統一·後社會主義化라는 戰略的 立場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北韓의 경우도 같을 것으로 볼 수가 있다. 勞動黨
規約 全文에는 “當面目標는 全國的 範疇에서 社會主義 建設을 完
成하는 것이며 最終目標는 共產主義社會의 實現에 있다”라고 南韓
社會의 社會主義, 共產主義化를 明白히 밝히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
서는 먼저 統一이 達成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따라서 “統
一” 그 自體가 目的이 아니며 全韓半島에서의 社會主義, 共產主義
社會實現이 目的인 것이다.

(6) 平和統一案의 提議時期

中共의 對臺灣 平和統一提議는 “臺灣關係法”에 基礎한 美國의 臺
灣 武器販賣를 둘러싼 美·自由中國의 實質關係 때문에 美·中共關
係가 惡化되는 時期에 이루어졌다.

北韓의 聯邦制方案도 4.19 革命以後 政局의 安定을 收拾하지 못했
던 1960年 8月과 7代 大統領選舉以前 “닉슨·독트린”에 의한 駐韓

美軍撤收論議 등으로 不安했던 1980年 10月에 各各 提案되었다.

이것은 中共·北韓 모두 그들의 統一戰線戰略을 그 時代的 狀況에 민감하게 對處하여 提議했다는데 類似性이 있다.

나. 差 異 點

(1) 統一의 形式

中共의 統一은 中國을 代表하는 唯一合法政府인 “中華人民共和國”에 臺灣政府를 吸收시켜 臺灣을 하나의 “省”으로서 “回歸”시키고 特別行政機構로서 自治權을 賦與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統一政府”를 樹立하기 위한 “統一”提議가 아니라 國際社會에서 中華民國을 名實共히 없애고 그를 中共治下의 自治區로 만든다는 意味인 것이다.

中共에서 “統一”이라는 말대신 “回歸”라는 用語를 쓰고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그 理由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主張하고 있는 “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에서의 統一은 일단 形式上으로는 中共의 경우처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治下에 “大韓民國”을 吸收한다는 것은 아니다. 南과 北이 合作해서 第3의 統一政府를 樹立한다는 것을 形式上 標榜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 말대로 統一政府가 樹立되면 일단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形式에도 不拘하고 本質적으로 그들의 共產政權이 韓半島 全域을 支配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戰略이다.

(2) 統一協商의 對象

中共은 臺灣政府의 當局者를 對話와 合作의 對等한 對象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반면, 北韓은 現存 大韓民國政府를 對話 相對方으로 認定하지 않는다.

中共은 처음부터 合作과 統一의 相對를 尊重하는 立場을 취해 왔기 때문에 항상 當局者와 實權者만의 協商으로 될 수 밖에 없었다. 最近의 第3次 國共合作의 中國平和統一 9個方案에서도 臺灣政府의 指導部에 대해 그들을 反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全國的 政治機構의 指導的 任務를 맡게 하여 國家管理에 共同領導의 資格으로 參與케 한다는 內容을 밝혔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는 1950年 6.25 直前に 提議한 바 있는 南北의 立法機關의 統合을 통한 統一方案에서 李承晚大統領을 비롯한 9名의 指導級 人士를 除外시켰으며, 最近에는 現存 大韓民國政府는 “鬭爭의 對象인 反動政府” 이므로 協商의 對象이 될 수 없으며, 또 實際적으로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을 準備하자는 對話機構의 代表構成에서도 現在의 大韓民國政府 當局者들을 排除하거나 심지어 韓國側 代表를 一方的으로 指名하고 있다.

이러한 差異는 臺灣·中共關係에서 中共의 立場이 優越한데 반하여 우리 南·北關係에서는 大韓民國의 立場이 優越하다는 事實을 反映하는 것이다.

(3) 統一의 前提條件

中共은 最近 “中國平和統一 9 個方案”을 提示하면서 아무런 前提條件을 提示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서 現 蔣經國總統의 退陣이라든가 反共政策, 反中共政策의 拋棄와 같은 內政干涉的인 條件提示는 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北韓에서의 統一方案 提示에서는 물론 南北間 對話에 있어서도 항상 前提條件을 提示하고 있다.

70 年代의 南北對話에서는 社會的 環境(政治犯釋放, 反共法撤廢, 戒嚴令解除)改善을 先行條件으로 삼았으며, 1980 年 10 月 勞動黨 6 次大會에서 밝힌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設案은 美軍撤收, 現政府 退陣, 反共政策 拋棄등의 前提條件을 提示하고 있다. 요컨대 中共은 “提案” 그 自體에 意義를 賦與하는 것이 아니라 實質的으로 問題를 解決하자는 것이며 北韓은 問題의 解決보다는 “提案”한다는데 그 意義를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 역시 臺灣·中共關係와 南北關係의 現實的인 優越關係의 差異를 反映한다.

(4) 統一戰略의 接近方法

中共은 統一을 위한 協商을 提議하면서 相互接觸과 交流合作 등 機能的 接近을 同時的으로 主張하고 있는 반면 北韓은 “十大施政方針”主張에서 南北韓間의 合作과 交流를 言及하면서도 이의 實踐問題는 完成된 統一體制(聯邦制)가 이루어진 뒤에라야 考慮될 수 있다고 前提함으로써 聯邦制가 이루어지기전에는 南北韓間에 어떤 交流와 協力도 하지 않겠다는 態度를 分明히 하고 있

다. 요컨대 中共은 平和統一協商과 機能的 接近을 同時에 追求하는 接近方法을 擇하고 있지만 北韓은 “政治的 合作”이나 “軍事的 合作” 등의 政治的 統속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5) 統一의 過程

統一을 實現함에 있어서 中共의 경우는 過渡的인 段階 또는 形態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中國”인 中華人民共和國에 臺灣을 歸屬시키면 그것으로 統一이 完成되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은 하나의 統一의 形態로서 提案되었다고는 하나, 本質上 過渡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案은 “完全統一”이 아니라 “不完全統一”案인 것이다. 이案의 骨子は 南北의 現體制를 地域政府로 하여 各部門에서 相互 “合作”과 “團結”을 圖謀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北韓은 이와 같은 “合作”과 團結過程을 통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의 社會主義體制로 “化” 하겠다는 意圖가 숨어 있는 것이다. 北韓의 提議는 南韓에서 美軍撤收로 인해 軍事的 武裝解除가 事實上 이루어지고 共產主義 政黨活動의 合法化를 許容하는 聯共政府가 樹立되면 그 政府와 相對해서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을 創設하고자 하는 것으로 “兩體制的 共存”은 一時的인 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하나의 社會主義體制로 “化”하여 國號에서 “聯邦”이라는 글자를 없애자는 것이 그들의 속셈이다.

(6) 其 他

中共은 統一問題를 國民黨과 共產黨間의 上部 合作方式으로 解決하려 하나 北韓은 現 大韓民國政府를 除外한 諸政黨·社會團體間의 下部 合作形式을 高집하고 있는 것이다. 中共은 中國이 多民族國家이므로 北韓과는 달리 少數民族 政策에 立脚해서 臺灣을 誘導하고 있는 것이 差異點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中共과 北韓은 그들이 追求하는 統一의 原則과 方向에서 一致性을 보이고 있으나, 統一의 實踐過程과 方法에서는 많은 差異點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中共과 北韓의 統一提議는 共產黨 固有의 統一戰線戰略에 立脚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6. 結 論

中國共產黨은 1921年 7月 레닌에 의한 코민테른의 政治工作의 產物으로써 中國大陸에 組織된 後, 마르크스·레닌주의 특히 毛澤東思想의 理論的 틀에 基礎한 共產黨 固有의 統一戰線戰略을 劃策하여 第1, 2次 國共合作을 圖謀, 급기야는 1949年 國民黨 政府를 臺灣으로 逐出하고 毛澤東이 領導하는 '中華人民共和國'을 樹立하였다.

그 結果 國土는 分斷되었으며,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中共은 統

一, 즉 臺灣解放問題를 諸般政策中 最優先政策으로 採擇하고 이를 實現하기 위한 努力을 傾注하여 왔다.

中共은 政府樹立初期에는 武力에 의한 臺灣解放을 企圖하여 왔다. 1954 ~ 55年, 1958年에 “피로써 臺灣을 씻는다”라는 口號를 외치면서 中國의 海岸가까이에 있는 國民黨政府 統治地域인 金門島, 馬祖島等地에 軍事的 壓力을 加하기 始作하였다.

그러나 이 試圖는 失敗로 끝나게 되었고, 또한 國內外 狀況의 變化에 따라 “臺灣解放”問題는 잠시 留保되는가 싶드니 最近에 와서는 “繼續革命”이라는 口號使用을 中止할 것을 黨論으로 決定함과 同時에 “臺灣問題”를 平和的으로 解決할 것을 主要政策으로 採擇하고 “臺灣解放”에 대한 平和攻勢를 積極化하는 政策變化를 보였다.

1979年 1月 1日 “美·中共 友好條約”의 發效를 時點으로 “臺灣同胞에게 告하는 글” “祖國統一 6個原則” 등의 平和攻勢로 급선회하더니, 1981年 10月 1日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長 葉劍英의 “中國平和統一 9個方案”의 發表에 의해 “國共對等談判” 이른바 第3次 國共合作을 提示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臺灣當局은 이러한 中共의 平和統一提議는 戰爭의 또다른 形態에 不過하다고 強力히 非難하면서 過去 第1,2次 國共合作의 쓰라린 經驗을 상기시켰다.

이른바 第1次 北伐과 第2次 抗日等 “全民族의 利益”이란 口號下에 이루어졌던 國共合作도 事實은 共產黨의 統一戰線戰略의 策略에 不過했던 것이다. 요컨대 最近 中共의 平和統一攻勢는 自己

들의 窮極的인 目標을 隱蔽하고 時期와 環境에 맞는 運營上의 묘
를 發揮한 것에 不過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中共은 最近 美·中
共間의 關係改善, 中·蘇間의 關係惡化, 美國과 臺灣과의 微妙한 關
係, 鄧小平體制의 登場, 地理的 與件등 對內外的인 狀況의 變化에 適
應하여 또다시 共產黨 特有的 統一戰線戰略의 고개를 든 것이다.
이리하여 臺灣의 輿論을 分裂 및 攪亂시키고, 美國의 臺灣接近에 害
기효과를 노리며 나아가서 亞細亞, 太平洋地域의 團結된 反共力量을
분쇄하여 窮極적으로 現臺灣體制가 臺灣系 爲主의 體制로 根本的인
體制的 性格變化가 일기전에 現體制를 說得하여 統一問題의 解決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北韓은 1945年 國土分斷 以來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곧 韓
半島 全體의 共產化를 위해 對內外的 與件과 狀況變化에 따라 武
力統一方案과 平和統一攻勢등의 戰術을 구사하여 왔다.

解放後 2次에 걸친 美·蘇共同委員會를 통한 統一政府樹立試圖가
霧散되어 美國은 유엔에서 韓國의 獨立問題를 다루기로 決定하고 유
엔의 決議를 거쳐 유엔 韓國臨時委員會를 構成하기에 이르렀으나 北
韓共產集團이 이를 拒否하였다.

한편 南韓內에서 金九, 金奎植等 臨政派들은 “北韓共產集團이
反對하는 總選舉는 南韓만의 單獨選舉로 귀착되어 國土의 永久分斷
을 超來케 한다”는 理由로 이를 反對하고 南北協商에 의한 統一政
府樹立을 要求하였다.

이에 北韓側은 共產主義者들의 統一戰線戰術을 원용한 南北政治 協

商會議을 平壤에서 開催하고 一方的인 결의를 통해 北韓共產政權의 正統性 名分을 賦與하기 시작하였다. 北韓은 이미 下部統一戰線機構인 소위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을 1949年 6月에 結成하여 이를 平和統一宣傳機構로 活用하였다. 즉, 6.25 開戰을 不過 18일 앞둔 1950年 6月 7日 北韓側은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名義로 이른바 “平和統一呼訴文”을 發表하여 6.25 武力南侵에 대한 煙幕戰術을 구사하는데 活用하였고 6.25 戰爭의 失敗로 國土와 民族 分裂이 深化되자, 그들은 6.25 戰爭의 責任을 北侵에 의한 것이라고 強辯하면서 欺瞞的인 平和攻勢를 展開하여 오던 중, 韓國이 4.19 事態로 말미암아 政治的·社會的 不安이 加重되고 統一에 대한 國論이 分裂되자 이를 利用할 目的으로 1961年 5月에는 소위 “祖國平和統一委員會”라는 또 하나의 僞裝平和宣傳機構를 造作하여 이를 活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5.16 軍事革命以後 反共體制가 整備 強化되고 第3共和國 出帆과 더불어 經濟建設에 成功하게 되자 北韓側은 이에 對應하여 從前의 欺瞞的인 平和攻勢를 止揚하고 4大軍事路線에 의한 暴力的 方法에 의한 赤化統一을 追求하여 왔으나 번번히 失敗되고 말았다.

70年代에 시작된 南北對話過程에서 上部 統一戰線戰術을 試圖하였으나 이것마저 여의치 못하게 되자 北韓側은 平和宣傳攻勢強化와 함께 南北政治協商會議 戰術을 並行하기 시작하였다.

즉, 金日成이 1973年 4月 시아누크 歡迎演說을 통해 當時 進行중

이던 南北調節委員會에 南北의 各政黨·社會團體 代表를 包含시키든지 또는 南北調節委員會와 別途로 南北의 各政黨·社會團體와 各界人士가 參與하는 政治協商會議 召集을 主張하였는데, 南北調節委員會를 南北의 各政黨 社會團體에서 各各 5名내지 20名씩이 參席하는(한 쪽인원 1500~3000名 推計) 群衆集會 形式의 會議體로 發展시킬 것을 强辯하였다.

北韓側의 僞裝平和攻勢는 1980年 10月에 開催된 勞動黨 第6次大會에서 提示된 “高麗民主聯邦共和國創設方案”을 계기로 하여 더욱 强調되었다.

北韓側이 처음 主張한 聯邦制는 1960年 8月 金日成 演說에서 비롯되었고 1973年 6月에 發表된 소위 金日成의 “祖國統一 5大綱領”에서 發展되었는데 이때 그들의 主張은 南北統一이 이루어질 수 없는 狀況에서 過渡期的인 조치로 南北聯邦制 實施를 主張하였으며, 1980年 10月에 提示된 “高麗民主聯邦共和國提案”은 過渡期的인 措置로서의 聯邦制가 아니라 統一形態로의 聯邦制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10大 施政方針을 提示함으로써 統一後의 政策路線까지 一方的으로 밝히고 있다.

時期的으로 볼 때 이것은 韓國이 10.26事態以後 政治的 混亂期에 처해 있었던 것, 그리고 中共이 臺灣에 대한 武力解放路線을 拋棄하고 平和的인 方法에 의한 統一方案을 천명한 것과 때를 같이한다.

더우기 北韓側은 全斗煥 大統領의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 相互訪問”提議(81.1.12)와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提議(81.6.5)에 이어 천명된 우리의 包括的인 統一方案인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82.1.22)이提示된以後 現 大韓民國政府 當局者를 徹底히 배제
한 가운데 合作의 方法에 의한 統一論議를 主張함으로써 變形된 統
一戰線戰術을 구사하려 하고 있다.

즉, 1982年 2月 10日 그들 政權의 御用團體인 “祖國平和統一委員會”
名義의 聲明을 통해서 大韓民國이 提議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과
“20個 示範實踐事業” 推進提議를 分裂論이라고 非難하면서 이를 拒否
하는 한편 이른바 南北韓 政治人聯合會議를 召集하자고 主張하였다.
이같은 北韓側의 提議는 우리의 統一方案을 “分裂策略”으로
일축하고 當局間 對話를 拒否하는 가운데 그들이 一方的으로 指名
한 韓北韓 政治人 및 海外僑胞 100名으로 構成되는 聯合會議를 開催
하여 “聯邦案을 비롯한 統一問題 全般을 協議하자”는 것이다. 그
러면서도 그들은 協商對象問題에 있어 그 提議는 政權次元이 아니
라 社會團體인 “祖國平和統一委員會” 聲明 形式을 취하였고 現時點
에서 當局者間 뿐아니라 合法的 政黨 團體와는 接觸할 수 없다는
對話拒否 姿勢를 露呈시켰으며, 會議體 構成을 위한 우리側 代表 50
名을 一方的으로 指名하였는데, 그 對象의 人的 性分을 보면 우리側 參加
對象者들의 現職責을 意圖적으로 無視하고 前職責을 呼稱하여 우리政府
當局은 물론 現政黨·社會團體를 一切 부정한 가운데 大韓民國內에
서 政治被規制者, 拘束者등 現政府로부터 疎外된 舊政治人 및 過激
不純者들을 大部分 指名하고 있다. 심지어 幽靈團體인 “統革黨” 代表 등
幽靈人物을 指名하였을 뿐아니라 海外同胞人事 14名中 최홍희, 최

덕신등 13 名의 反韓 親北人物을 指名함으로써 이들을 “南朝鮮의 民意를 代辯하는 者”로 浮刻시켜 “南北韓 政治人 聯合會議”에서 數的인 優勢를 確保하려고 기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北韓側은 統一問題를 論하는 “南北韓政治人 聯合會議”는 個別的 政治人들 間의 쌍무적 會談이 아닌 多務的 圓卓會談이 될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同會議 召集底意가 統一問題 解決을 위한 南北對話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에 대한 正當性을 賦與하기 위한 것으로써 從來 그들이 主張해 오던 “南北政治協商會議”나 “大民族會議” 또는 “民族統一促進大會” 등과 같은 것에 名稱만을 바꾼 것이다.

結論적으로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지난 期間동안 中共의 統一戰線戰略을 원용하는 戰略戰術을 그들의 共產化 統一政策推進의 基調로 삼아왔을 뿐아니라 中共과의 反美共同鬭爭을 통하여 共產化 統一을 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最近 中共의 反蘇親美方向의 外交政策 推進과 臺灣 解放政策路線의 變化樣相은 北韓側에게 深刻한 衝擊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앞으로 北韓側은 그들 內部事情과 韓半島 周邊情勢 變化의 影響을 받아 從來의 教條的인 이데올로기 體制로부터 實用主義 體制로의 政策變化가 不可避할 것이지만, 北韓側은 그들의 暴力戰略을 隱蔽하는 偽裝平和戰術을 展開해 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中國 共產黨의 統一戰線戰略의 本質을 理解하여 이
를 援用하는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策略을 看破하고 最近 中共의 臺
灣 統一政策 展開樣相을 教訓삼아 더욱 교활해질 것으로 豫想되는
北韓의 偽裝平和 統一戰略에 대치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